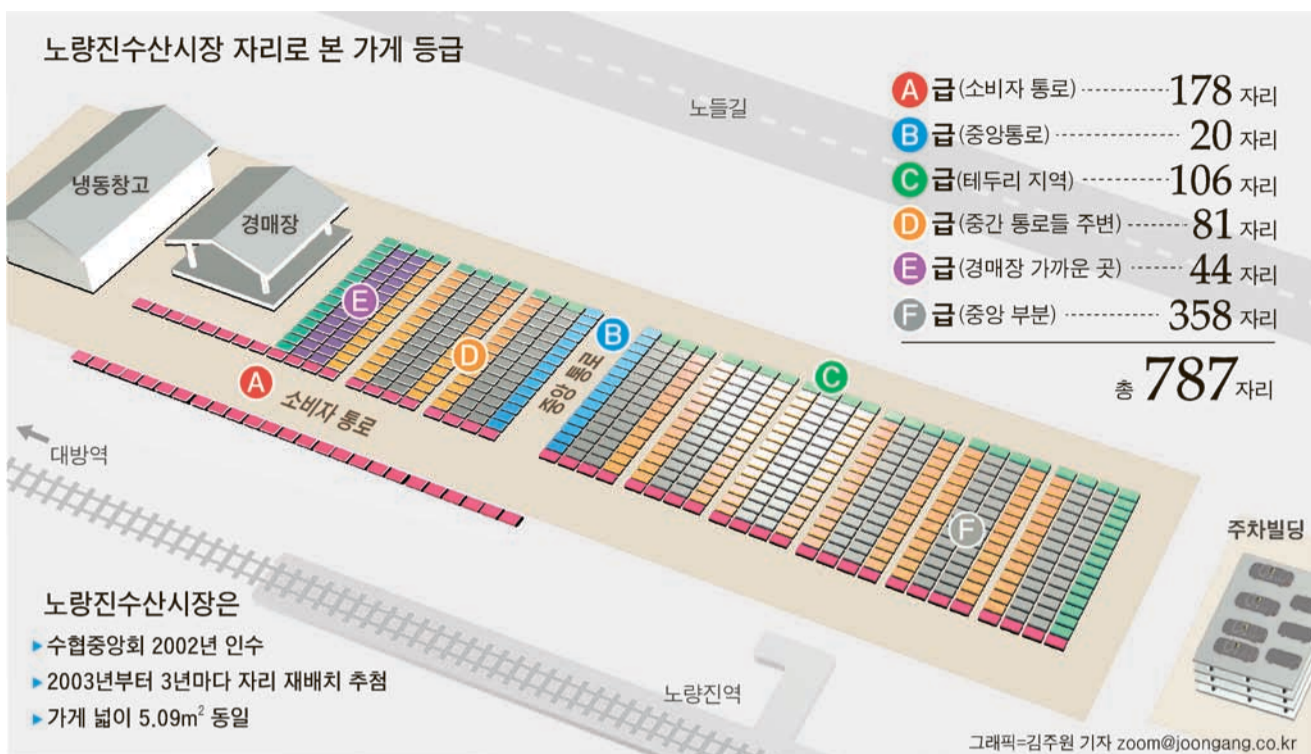


# 3년 장사 걸린 '노량진 로또' ... A급 500만원, F는 100만원

(하루 매출)



## 노량진수산물시장, 이달 말 가게 자리 재배치 앞두고 술렁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출구를 거쳐 시장 입구로 들어가니 바로 오른쪽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 아시죠. 싱싱한 조개 더 드릴 테니 사가세요.” 동해수산 임미정(35)씨가 전북·조개 등 해산물을 팔며 손님을 불러 모았다. 10분을 지켜보니 물려드는 손님이 앓을 새도 없이 바빴다. 이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까닭은 ‘소비자 통로’로 불릴 정도로 목이 좋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물론 주차빌딩과도 가깝다. 임씨는 이곳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다. 2003, 2006, 2009년 자리 추첨에서 상인들이 가장 탐내는 ‘물 좋은’ 곳을 골라 얻은 별명이다.

가게 넓이(5.09㎡)는 같고 임대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목에 따라 매출이 3~5배나 차이가 나 서다. 목이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수협은 3년마다 자리 재배치를 결정했다. 연 회장은 “가게 위치별로 매출 차이가 크지만 상인들이 공평하게 자리를 뽑기로 정하기로 합의해 임대료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시장 북쪽 가게는 등성등성 문이 단

뽑기 대상 가게는 787곳이다. 입점 위치에 따라 최상위 A급에서 F급까지 6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활어를 팔고 있던 한 상인은 “F급 가게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되지만 A급은 300만~500만원 한다”며 “장사 수완보다 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자리 추첨도 예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게당 한 명을 미리 추첨자로 등록하고, 추첨 시간에 맞춰 노량진수산(주) 사무실에서 밀봉된 플라스틱 통(지름 1cm, 길이 2cm)을 뽑는 방식이다. 통을 열면 자신이 들어가게 될 자리 번호가 적혀 있다.

## 형평성 위해 787곳 3년마다 추첨

장사 수완보다 자리가 훨씬 중요

## 3연속 A 뽑은 ‘신의 손’ 김용철씨

“종교는 없지만 암자 찾아가 기도”

한 채 한산했다. 목이 좋지 않아 오전에 도매 단골들과 거래하고 손님이 뜬 오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이다. 오복수산 임복성(58)씨는 “3년 전 운이 나빠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며 “올해 추첨날에는 목욕재개하고 잘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하루 3만 명의 손님이 찾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달 말 대전(大戰)을 치른다. 가게 상인들이 ‘로또’ 또는 ‘뽑기 올림픽’으로 부르는 자리 재배치 추첨이다. 올해는 이달 말 추첨, 재배치는 다음달 진행되는 방안을 상인들과 협의 중이다. 추첨일이 다가오자 상인들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연주영(61) 고급상회장은 “3년간 장사가 자리에 달려 있어 서로 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2002년 노량진수산물(주)을 인수한 뒤 2003년부터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다.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동해수산의 임씨는 세 번 연속 A급 자리를 뽑았다. 2009년에는 2006년부터 영업하던 바로 옆 자리를 뽑는 신공(神功)을 발휘했다. 그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이번에도 좋은 곳을 뽑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신안군향우회’에서 고급 횡간을 판매하는 김용철(49)씨도 ‘신의 손’으로 불린다. 세 번 연속 A급 자리를 뽑았다. 그는 “종교는 없지만 최근 산에 오르면 암자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며 “가게를 옮기는 게 손해라 뽑기를 안 하면 하는 상인도 있다”고 말했다.

역전을 노리는 상인도 있다. 오복수산 임씨가 그렇다. 2003년 C급, 2006년 A급, 2009년 C급 자리를 뽑았다. 3년 주기로 행운과 불운이 반복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행운이 올 것”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2003년 F급, 2006년 C급, 2009년 C급을 뽑은 유성수산 유승희(62)씨는 “하늘의 뜻 같다”고 했다. 그는 “팔이 늦게 뽑아야 좋다고 해서 늦게 갔었죠. 근데 이미 좋은 자리가 다 나갔더라고요”라며 답답해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 명지인의 1% 가능성을 열어줄 교수님을 모십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연애호 정신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천해 온 명지대학교가 학생들의 1%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바꾸어주시길 교수님을 모십니다.

## 교수초빙

- 초빙분야
  - 전임교원(일반교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정보학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건축대학 건축학부
  - 전임교원(교양교수) 방목기초교육대학 영어학/영문학/영어교육학
  - 전임교원(전문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전 학과(부) 및 대학원
- 접수방법 : www.mju.ac.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 (E-mail 접수만 가능함)
- 초빙인원 : 분야별 약간명
- 접수기간 : 2012. 4. 24(화) ~ 4. 26(금) 17:00
- 문의처 : 02-745-5633, 031-330-602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mju.ac.kr 참조

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

## 명지대학교



※ 설립정신 :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상근

## 알림

# 희망의 새 이름 ‘자원봉사’

자원봉사대축제 30일까지 접수 ... 5월 한 달간 100만 명 동참



매년 봄 펼쳐지는 ‘전국자원봉사대축제’가 5월 한 달간 열립니다. 개인·가족·단체·기업·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민국 최대의 나눔·봉사 행사로 올해 19회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 현안이 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돕기 봉사’를 특별부문으로 정했습니다. 대축제 개막식은 5월 2일 정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며, 축제기간 중 자원봉사 특별포럼과 콘퍼런스,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행사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나의 작은 손길이 누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가방법 : 개인·가족·단체·기업·학교 등 단위로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 대축제 기간(5월 1~31일) 중 4시간 이상 자율적 실천
-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www.nvf.kr)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30일(월)까지 e-메일(nvf@nvf.kr)이나 팩스(02-751-9688)로 신청
- ◆활동보고서 제출 : 봉사활동 내용을 홈페이지에 준비된 양식에 작성해 6월 29일(금)까지 16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시상 : 지역 예심·본심을 거쳐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 총 31개팀 시상 (총상금 2150만원)
- ◆문의 : 02-751-9454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 ◆후원 :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주최 : 중앙일보 jtbc 한국자원봉사사업의회 협찬 : SAMSUNG

jtbc 채널 15 하이라이트 채널·프로그램 안내는 02-751-6000

PM 8:05 일일시트콤 ‘청담동 살아요’ 밤 10시 메인뉴스 시대를 연 JTBC 뉴스 10

PM 8:45 월화 미니시리즈 ‘신드롬’ PM 11:05 닥터의 승부

이 로고가 표시된 중앙일보 사진을 스캔서치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촬영하면 JTBC의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